

홍수현

“저 요즘 심각해요”

탈린트 홍수현(21)은 요즘 ‘연기에 몰이 올랐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이유는 KBS 2TV 주말연속극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에서 첩(박정수)의 딸 진주 역을 맡아 ‘깊은’ 연기에 눈을 떴기 때문이다.

극중에서 홍수현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슬로 태어난 한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배다른 오빠를 향해 “우리 모녀가 누군지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며 앙칼지게 쏘아붙이고 9년이 흐른 뒤 솔직 호스텔로 살아간다. 당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을 간직한 연기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

홍수현은 그동안 ‘코믹한 훈수’로 인식됐던 게 사실이다. 한 음료 CF에서 “아저씨는 산소 없이 살 수 있어요?”라고 능글맞게 얘기하던 모델로, 4월 MBC 월화 미니시리즈 ‘맛있는 청춘’에서는 알미온 행동을 일삼는 할부집 규수로 웃음을 전했던 그는 ‘아버지...’를 통해 이전의 이미지를 벗어 버리고 있다.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연기의 폭을 넓히기가 어려웠는데 ‘아버지...’에서 진지하고 무게 있는 연기를 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 한편에 있는 우울한 감정을 꺼내는 계기도 됐고요.”

그는 진주 역을 맡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대본을 크게 읽는 연습을 한다. 이 때문에 인천 그의 아파트에서는 “야밤에 웬 고타소리냐”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을 정도.

신인에게 가장 어렵다는 그는 연기에 대해서도 그는 “‘진주’가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나온다”고 설명한다.

그는 1998년 친구의 추천으로 ‘깨끗한 얼굴 선발대회’에 나갔다

KBS2 ‘아버지처럼...’서 서슬의 한 씬은 속깊은 연기 데뷔 이래 코믹이미지 벗어

가 금상을 받은 후 연에 기획자에게 발탁됐다. 의류 CF와 조성모의 ‘다짐’ 등 뮤직 비디오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뒤 탈린트가 됐다.

“대위 2년차여서 아직 연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미있으면서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연기터군요.”

고현정의 ‘단아함’과 고소영의 ‘당당함’을 닮고 싶다는 홍수현은 “시청자를 감동시키는 배우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사진제공 Lee&J 엔터테인먼트

KBS 주말극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에서 첩의 딸로 태어나 솔직 여자로 살아 가는 진주 역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하는 홍수현.



시월의 연인들을 위한 발라드 콘서트 ‘시월에 눈내리는 마을’을 꾸미는 가수 이소라 성시경 박효신(왼쪽부터).

동아일보 자료사진

가을밤 눈내리는 발라드 향연

이소라 성시경 박효신 27,28일 연세대서 합동 콘서트 4억투입 환상무대 객석에도 눈내리~인터넷 예매는 동나

10월 야외무대의 아름다운 밤과 하얀 눈, 그리고 결코 없는 보컬의 아릿한 발라드.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콘서트 ‘시월에 눈내리는 마을’이 요즘 연인들 사이에 으뜸 화제가 되고 있다. 10월에 하얀 눈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콘서트의 주최측은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 뿌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1999년 처음 열린 이 콘서트는 올해가 두번째. 첫 회에는 8000여석이 매진되면서 연인들의 추억을 아로새기는 행사로 호평을 받았다.

올들어 이 행사의 기획사 ‘좋은 콘서트’의 홈페이지에는 ‘시월에...’의

개최 여부를 묻는 메일이 쏟아졌다. 13일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매를 받은 지 순식간에 전체 1만6000석 중 인터넷 예매분 6000여석이 뚝나는 바람에 판매를 중단하고 나머지 객석은 별도의 예매처에서 팔기로 했다.

공연은 27, 28일 오후 5시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시월에...’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이소라 성시경 박효신 등 발라드의 빅스타들이다. 흡입력 있는 보컬의 이소라, 해맑고 순수한 미소의 성시경, 폭발적인 가창력의 박효신 등 각각 다른 매력의 세 가수가 추억을 일군다.

세 가수는 특히 자기 히트곡 중 연

인들의 가슴을 적시는 노래로 무대를 꾸밀 예정. 이소라는 ‘청춘’ ‘처음 느낌 그대로’, 성시경은 ‘처음처럼’ ‘내게 오는 길’, 박효신은 ‘동경’ ‘쇼 유어 러브’를 각각 부른다.

이어 성시경과 이소라는 ‘잊지 말기로 해’를, 박효신 이소라는 ‘이츠 고너비 롤링’ ‘웬 아이 폴링 인 러브’를 듀엣으로 부르고 세 가수가 함께 ‘그대 안의 블루’를 부를 예정.

주최측은 무대와 객석 하늘에 제설기를 설치한 초대형 풍선을 5, 6개 띄워 하늘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지상 마을(객석)에는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트를 설치해 동화 속 나라 같은 인상을 줄 계획. 무대 제작비는 모두 4억여원이 투입된다. 공연 티켓은 3만, 4만, 4만 5000원, 1588-7890 <히 엮기자> heo@donga.com

‘불타는 뉴욕’ 섬뜩한 재킷사진 교체소동

메탈그룹 ‘드림 시어터’ 테러 볼륨~국내선 그대로 발매

강력한 기타 연주와 클래식 사운드 등을 결합한 프로그레시브 메탈 그룹 ‘드림 시어터(Dream Theater)’가 9월11일 발매한 미국 테러 사건에 휘말렸다. 이들의 라이브 앨범 ‘라이브 신스 프롬 뉴욕(Live Scenes From New York)’ 재킷 사진에 불타는 뉴욕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테러사건 이전에 제작된 이 재킷의 사진은 1일 미국과 유럽, 일본 발매 때 부라부라 왕관 모양의 단순한 문양으로 교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의 앨범 재킷 사진을 그대로 살려 8일 발매됐다. 음반 발매사인 워너 뮤직 측은 “테러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드림 시어터 앨범의 재킷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원본을 그대로 살렸다”고 밝혔다.

드림 시어터의 이번 음반은 8월 30일 미국 뉴욕 로즈랜드 볼룸에서 열린 ‘메트로폴리스 2000 투어’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 ‘페이탈 트래지디’(Fatal Tragedy) ‘코트 인 어 뉴 밀레니엄’(Caught In A New Millennium) 등 3장의 CD에 총 25곡을 수록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사진제공 워너뮤직

메탈그룹 ‘드림 시어터’ (아래)의 새 라이브 앨범 재킷이 불타는 뉴욕사진을 담고 있어 재킷 교체 소동이 벌어졌다.

방송가

온게임넷 쌍방향 게임드라마

게임전문 케이블TV 온게임넷이 시청자가 게임 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게임 드라마를 19일 첫 방송한다. 공포 게임인 ‘화이트 데이’가 원작. 매회 인터넷과 ARS 등을 통해 드라마 속에 제시되는 상황 중 다수의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내용을 토대로 줄거리를 이어가게 된다.

소유진 ‘여우와 솜사탕’ 주연

탈린트 소유진이 MBC가 ‘그 여자네 집’ 후속으로 27일 첫 방송하는 60부작 주말드라마 ‘여우와 솜사탕’(토일 오후 7:55)에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이 드라마는 386세대의 남자와 신세대 여자의 사랑 및 성향이 다른 두 사람 가정의 결합을 그려나갈 예정. 소유진은 승부 근성이 강한 24세의 한의대생 안선녀로 출연한다.

나의 데뷔시절... 탈린트 허영란

‘순풍...’서 허간호사역 ‘쌍순이’로 깊은 인상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온전으로 유명한 충남 온양으로 이사를 갔다. 서울과 떨어진 곳에 사는 터라 연예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중3 때 기회가 찾아왔다. 연예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한 분이 “MBC에서 청소년 드라마를 한다는데 너같이 생긴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내게 알려준 것이다.

그 분 소개로 나는 여의도를 찾았고, 97년 MBC 청소년 드라마 ‘나’에 출연하게 됐다. 그 드라마에서 나는 ‘영란 공주’ 역을 맡았는데 자신이 무척 예쁘다고 착각하는 공주병 환자였다.

고교(온양여자종합고교)에 진학한 후 한동안 진로를 놓고 고민했지만, 곧 이런 고민을 떨쳐낼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나를 결정적으로 알리게 된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였다. 98년

부터 ‘순풍...’에 합류한 나는 극중에서 방송 작가로 나오는 권오중 선배를 짝사랑하는 허 간호사 역을 맡았다.

똥한 표정에 고집 세고, 입에 빵을 달고 사는 ‘쌍순이’였다. 아무 리 신인이라지만 다소 고민되는 캐릭터였다. 극중 허 간호사는 내가 봐도 “뭘 저런 애가 다 있냐”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세대 특유의 당돌하고 적극적인 인상이 시청자에게 서서히 어필해갔다.

연기를 배우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좀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캐릭터를 맡고 싶었다.

예를 들면 반항이나 소매치기, 말기 앞 환자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내 출세작인 시트콤을 통해 고정된 이미지를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출연중인 MBC 주말드라마 ‘그 여자네 집’에서도 그냥 소박하



동아일보 자료사진

나를 본격적으로 알린 ‘순풍 산부인과’에서는 빵을 너무 많이 먹어 ‘쌍순이’로 불렸다.

고 양중맞은 막내 여동생 이미지다. 언젠가는 사랑에 평평 옮겨나, 바람난 남자에게 매운 맛을 보여주는, 그런 또렷한 인상을 주는 연기를 하고 싶다.